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따라잡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협업 플랫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려면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 · 확산이 필수적이다. 이번 시리즈는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공동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를 연중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 입찰과 병행해 조합원사 동남아지역 수출시장 개척 적극 견인

공동사업 사례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발주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전시 참가 · 수출상담 추진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태)은 1948년에 창립돼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87개 조합원사와 함께 공동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조합은 2020년에 해양경찰청과 형사기동정 100톤급 2척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며, 계약금액은 161억원 규모이다. 이 계약에서 조합은 계약당사자로서 조합원사의 선박건조를 관리하고 하자 보수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 부분을 담당한다.

조합은 2016년에도 해양경찰청과 연안구조정 56척에 대해 62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개 회원사에서 선박을 건조해 2020년 인도를 완료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세관을 방문한 김성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 네번째) 등 조합 관계자들과 인도네시아 세관 관계자들이 간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대형조선소가 아닌 중소조선소에서 수주한다. 최근 수년간 발주되는 선박은 크기는 커지고 있지만 발주량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합은 국내 입찰 참여와 병행해 조합원사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형조선소 해외수출시장 개척지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선 공략시장으로 선정하고 중소형 조선소의 현지시장 개척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해양경찰, 세관, 선주협회 등 발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3개국에 대한 사전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각국 선주협회 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조합은 오는 9월중 조합원사와 함께

'마린텍 인도네시아 전시회'에 참가하고, 4분기 중 주요 수요국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유망 조선업체들로 구성된 수출협의체와 정부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조선업 수출지원협의기구를 구성해 수출대상지역의 시장정보 수집 및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지원 등 조합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은 보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1987년 정부로부터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거해 조선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조합원사가 건조 · 수리하는 각종 선박의 입찰, 계약, 하자 등에 대해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조합은 선박제조에 필요한 강판, 기자재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으로부터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에 공급하고, 조합원사의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을 위한 행정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경남도로부터 공예박람회 개최비 확보해 조합원사 판로확대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 사례

경남공예협동조합

전시부스 설치 · 부대행사 개최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경남공예협동조합(이사장 허일)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예인들의 판로 개척과 수익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와 공예인 간 직접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경남공예박람회를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조합의 대표적인 행사인 경남공예박람회는 지역 최고의 공예 장인들이 모이는 행사로 매년 80여개 조합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경남도로부터 박람회 개최비용으로 매년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금은 공예품 전시부스 설치와 부대행사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조합은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소개 ·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박



지난 7월 1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

람회 행사에서는 200여점의 우수 공예품을 전시 · 판매했다. 조합은 도자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 등 각 분야별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예품 제작 시연회 등을 통해 공예품의 제작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아울러 공예품 경매 행사도 진행해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지난해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는 했지만, 19년째 지속적으로 열려서 지역 내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개최예정인 경남공예박람회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은 경남도로부터 매년 3600만원을 지원받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의 지역 예선적인 경상남도공예품대전을 주관하고 있다. 경남 공예인의 많은 노력으로 2018년~2020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시 · 도 단체상 부문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매년 7200만원을 지원받아

조합 건물 내에 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60~70여개 조합원사의 제품 200여점이 상시 전시 · 판매되고 있다. 또한, 조합은 2020년 온라인쇼핑몰을 개장하고 온 · 오프라인 판매를 연계함으로써 판매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조합이 이처럼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2019년 제정된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든든한 발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조합은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조합원사 매출 활성화를 위해 '경남공예촌' 건립을 검토 중이다.

경남공예촌 건립을 통해 전통공예 각 분야 공예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나아가 작품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복합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이현재 하남시장과 환담

김기문 회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규제개혁대토론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전 중기청장)을 별도로 만나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환담

지난 19일 김기문 회장은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6월 대구 수성을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하고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 현안사항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임 내방

김기문 회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임 인사차 찾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만나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가 급등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공급과 신속한 자금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2022년 협동조합 신임이사장들과 간담



지난 18일 김기문 회장은 올해 선임된 협동조합 신임이사장들과 만나 최근 제3차 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관련 조합 인건비 예산반영 추진 등 협동조합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중기중앙회의 최근 노력을 설명하고 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따른 정부 지원시설 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신임이사장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